

# 이연록의 이다 스케오 회상과 이에 대한 의문점

〇 〇

이타助男이것은 외국의 한 전우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 금으로 주조 주입 된 것처럼 영원히 빛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군의 鰐剛[ワツゴ]입니다) 마을 한 여단의 한 군인 이었다는 것 외에는 지금 가지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東滿의 수십만의 옛 군대는 자위 군으로 개명했지만 일본군의 "토벌"에 따를 못하고 도망하거나 패배하거나 해하고 있었습니다. 1933 년 (쇼와 여덟 년) 봄,東滿의 항일 전쟁의 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당은 우리 당이 파악하고 있던 한 천여 구국군의 나머지를 당시의 해방구의 중심지 말 촌으로 이동시켜 "항일 유격 부대"로 고쳐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적은 조금도 손을 풀고 않고 즉시 구국군 토벌의 주력을 지어 연결, 화룡, 훈춘, 왕청 네 현의 세 천여 일본군을 모아鰐剛마을—旅団장의 지휘로 곧바로 내 우리를 추격 해 왔습니다. 삼월 삼십일 말 촌 일대에서 전투의 포문은 쏘아져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주는 기다릴 적의 비행기와 대포 '외로운 산'을 공격했습니다. "외로운 산"에서 우리 군의 일부는 어려움을 극에 탄약을 거의 사용 과연 버텼겠지만, 적은 더 쉴 새없이 공격 해 왔습니다. 초연이 자욱한 가운데 "외로운 산"위에서는 탄약의 보급을 재촉 깃발 신호가ひき리에 보내 왔습니다. 총알 (가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초조했다.

적의 마지막 공격을 격퇴하기 때문에, 적은 황혼되어 "외로운 산"에서 철수했습니다. 우리는이 기회를 틈타 바로 전장에 총알을 주워가는데로 각 부대에 명령했습니다.

자정 넘어, 앞으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별동대가嘎牙(시아ャ)河下류의肚子(토우즈) 부근의 전장을 수색하고 있던 때, 송림 속에 보병 소총의 총알을 가득 실은 한 대의 일본군 자동차가 감춰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총알을 손에 넣을 수있는 것 등 생각도 할 수없는 것이었습니다.

총알은 곧 메고 돌아 각각 전사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풍족한 정도의 총알은 우리의 가라 앉은 마음을 상쾌로 시켰습니다. 새벽 나는 각 진지를 돌며 전사들이 희생 된 전우를 진지에서 짊어지고 와서 장사 준비를하고있는 것을 시찰했습니다. 나는 열사들의 주검 앞에 서서 묵묵히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유격 군의 동지도 해방구 대중도있었습니다. 나는 하나 하나보고있다 중 놀랐 다 것은 열사의 시신 속에 일본 병의 시체가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를 메고 왔는지?"나는 별동대의 동지에 물었습니다.

별동대의 대장 리광 동지는 "군 장, 그는 우리의 동지입니다.이 차의 총알은 그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라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내고, 나는 손 내가했다. 보면 그 종이는 섬세한 일본 글씨가 빼곡히 적힌 것으로, 나는 점점 모르게되어 버렸습니다.

리 동지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별동대를 이끌고 송림 속에서 그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자동차의 엔진은 분쇄했습니다. 그 때 그의 원수가 왜 그것을 인장 나가지 않고 분쇄 한 것인지 이해하지했다. 그들이 소나무 숲을 떠나 더 전진 수색했다 때嘎牙강가에서이 일본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체에서 수십 곁을 떨어져 바위가 있고, 노트를 찢어 종이가 역제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이 종이입니다. 나는 즉시, 일본어가 را는 동지를 찾아 와서 받아 부르고주었습니다. 종이에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중국 유격대의 동지들

나는 너희가 골짜기에서 뿌려진 선전물을보고 너희가 공산당 유격대임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애국주의며, 또한 국제 주의자이기도합니다. 지불은 여러분과 만나 함께 공동의 적을 타도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시스트의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길을 막히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들고 온 수백 발의 총알을 귀 군대에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이 송림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본의 파시스트 군대를 호되게하십시오. 내 몸은 죽음과도 혁명의 정신은 길게 남는 것입니다. 신성한 공산주의의 사업이 하루 빨리 성공하기를기도하고

관동군 간도輜重대

일본 공산당원 이타助男

1933 년 3 월 3 십 일

나는 깊다. 존경에 노래했습니다. 주위의 유격대 전사들도 이타助男동지의 시신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눈물이 사람들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몸을 굽혀하고 이타助男동지의 시체에 가까이 더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있어 검은 눈썹은 길게 뻗은 얼굴은 피와 진흙 투성이는했지만 그의 사과로 한 침착성을 조금도 바꿀 것은하지 않았다.

우리가 쓰는 없어 손을 쥐고 부드럽게 호소했습니다.

"이타助男동지!"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그가 아직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대로 역동적이고있었습니다. - 그것은 국제주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중일 양국 인민은 영원히 함께 있고 선언하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타助男동지의 시체를 유격 군 열사와 함께 조용한 미도리의 골짜기에 묻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항일 영웅들과 함께이 땅에 영면 할 것입니다.

3 일 후 유격 군끼리와馬家마을의 대중은 이타助男동지의 무덤 앞에서 추도회를 실시해, 아울러 말 촌 초등학교를 "이타 초등학교

- 일본군은 이 사건을 인식하고 특무기관이 龜岡村—(또는 鰐岡村—)이 지휘하는 旅団에 군견을 동원한 수색을 실시하고 이 여단을 연길 전체에 뿔뿔이 흩어버리고 작교와 사범에 대해 사상교정을 실시하고 龜岡村—(또는 鰐岡村—) 여단장 자신도 해임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교차검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혹한 항일유격전 중에 편지를 분실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편지 내용을 보고한 공적 문서의 존재는 없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기억만으로 저 유서 쪽지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 30년동안 기억하고있다가, 그리고 그 30년중에는 어떤 대외 공적 기록으로도 남긴적이 없다가, 30년후에 지금에 와서 이번 한번만 처음으로 온전히 풀어냈다는 것인가?

-김성주(김일성)이 당시 왕청 유격대 소속으로 이 전투에 참가했고 이를 “대두천전투”라고 부른다던데 그리고 동북항일연군 내 조선인들이 상당수 소속되어있었으니,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이면 당연히 김일성 회고록이나 북한쪽 계통의 자료들에서도 교차언급이 되어야 맞다. 그러나 북한쪽에서 이 내용은 내가 모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왜인가?

-왜 왕밍의 2년후 보고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인가?